

문인들의 눈에 비친 이국의 문화예술

박완서·김병익·곽재구·임현담씨 등 예술기행문 선보여

여행은 장 그르니에의 '보로메 섬'처럼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낮은 세계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은 인간이 타고난 숙명과도 같은 것. 그래서 역마는 여행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역마를 타고난 문인들은 여행이 잦다. 그들의 기행문은 이름난 문화유적지와 지구 오지의 여행문처럼 기묘묘하지는 않지만, 삶과 역사를 통찰력있게 되 돌아보게 하고 굳어진 일상 속에서 활력과 꿈을 북돋운다. 눈 맑고 밝은 안목을 지닌 작가들이 길을 나서고 있다.

우리네 옛얼굴을 닮은 티베트·네팔

문인들이 저마다 찾아간 곳은 우선 그 여행지 선정부터 예사롭지 않다. 티베트·네팔, 실크로드, 이집트, 페루, 히말라야, 스페인 등 지구의 지기가 모인 곳이거나 태고의 숨결과 문물이 남아 있는 곳, 고대문명이 발생한 곳이다. 박완서씨의 《모독》(학고재), 임현담씨의 《히말라야의 순례자》(한길사), 김병익씨의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다》(문학과지성사), 곽재구씨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동방미디어)과 같은 책들이 그 여행의 결과물이다.

이들 기행문에는 인간의 갖가지 삶의 방식들과 유적, 그 모태가 되는 자연과 역사에 대한 무한한 관조가 담겨 있다. 그들은 도저한 자연에서 역경의 시간과 태초의 혼돈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앞에서 인간 내면의 열정과 미학적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들의 정치한 문장은 비경만큼이나 아름답다.

티베트·네팔은 근래 들어 우리 문단과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구도의 지역이다. 소설가 박완서씨와 시인 임현담씨가 각기 티베트와 히말라야를 다녀왔다. 박완서씨의 티베트·네팔 기행문집 《모독》은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학고재에서 기획한 세계문화예술기행 시리즈 첫번째 권이다. 외경스런 자연 앞에서 서서 자기존재를 되묻는 아픈 해오(解悟)의 순례인 이 책은 고산병으로 고생하면서 기록한 여행기와 시인 민병익씨의 사진을 통해 그 짙은 푸르름과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잘 전해 준다.

식물의 성장한계선을 넘어 풀 한 포기 자

역마를 타고난
문인들의 여행이 잦다.
그들의 기행문은
이름난 문화유적지와
지구오지 탐험기와는 달리
삶과 역사를 섬세하고
통찰력있는 눈으로
돌아보고 있어
이국의 문화예술을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쁨을 전한다.



윗줄 왼쪽부터
박완서·김병익·
곽재구·임현담씨.

라지 않는 척박한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그들은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맞추어 허투루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짐집승 야크의 똥조차도 연료로 요긴하게 재활용한다.

우리네 옛얼굴을 닮은 티베트 사람들에 대해 작가는 "내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저 사람들이 바로 부처로 보이고 절 안의 부처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고 적었다. 그 원천적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극빈의 상황에서도 '옴마니반메훔(연꽃 속의 보석이여)'이라는 진언을 입에 달고 다니는 티베트인들의 삶을 보며 박완서씨는 "우리의 관광행위 자체가 이 순결한 완전 순환의 땅엔 모독"이라고 자탄하기도 한다.

의사이자 시인인 임현담씨도 히말라야 일대의 기행문집 《히말라야의 순례자》(한길사)를 냈다. 그는 지난 6년여 동안 11개월은 일하고 1개월은 인도와 히말라야에서 지낼 정도로 인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바드리나트·케다르나트·강고트리·고무크 등 힌두교 4대 성지와 티베트 접경의 무스탕 왕국, 1,000년이 넘는 사원도시 카주라호 등 히말라야 일대를 둘러보고 쓴 이 산문집에서 그는 히말라야말로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라고 토로한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씨의 기행산문집도 빠질 수 없다. 그에게도 길떠나는 자의 설렘과 삶의 성찰이 없지 않으리니 그 진중한 사유를 묶은 책이 《페루에는 페루 사람들이 산

다》(문학과지성사)다. 한국문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나선 김에 다녀온 여행지는 페루, 케냐, 러시아, 중국 등지. 그곳에서 느낀 문명과 인간욕망에 대한 회의, 존재에 대한 겸허한 사유의 앙금을 담았다. 거대한 조명 장치처럼 보이는 안데스 지역의 쿠스코, 티티카카 호수의 무궁해 달에 그는 탄성을 터트리고 미추픽추의 침묵과 신비의 영원성에 대해 찬탄한다. 오직 무구한 자연만이 가득한 케냐에서는 "문명이란 결국 소유와 지식을 늘려 가면서 그 소유와 지식이 늘 부족하다는 불만을 환기시켜 주는 욕망의 체계가 아닌가"라며 문명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섬세한 통찰력으로 문화예술 접해

'사평역에서'의 시인 곽재구씨도 최근에 기행산문집을 출간했다. 그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은 전기한 책들과 달리 해외 여행기가 아니다. 우리가 밟았던 이땅, 전국의 국토를 여행하면서 쓴 기행산문집이다. 그가 말하는 '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삶을 설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찾아다닌 여행기로, 우리 역사와 민족혼이 담긴 국토를 두루 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서정과 정감있는 언어로 담았다. 가마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충남 서천 비인장, 유일한 골동품 난전인 광주 충장로 개미시장, 경북 경주 안강장 등 점점 사라져가는 옛 장터를 찾아 그곳의 빛바랜 풍광과 사람



들의 모습을 그려냈으며, 동학군의 발자취를 찾아나선 동학기행과 섬진강 물길 500리를 더듬은 섬진강 기행을 담았다.

이러저러한 문인들의 기행문학은 이국적인 풍물과 사진만으로 세인을 미혹시키지 않는다. 기행 자체를 '모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성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그곳의 삶과 자연과 문물을 대하며, 하나의 문명을 접할 때마다 진지하게 그 뒤안길에 있는 영광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간의 운명과 영혼의 문제를 천착한다. 운명적으로 역마살을 앓고, 떠보헤미안이 토해내는 괴물음이 아니라 준비하고 돌아올 것을 계산하여 떠나는 여행이라 조금 호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작가에 따라서는 그 지방에 동화되거나 즐거이 일체화되어 가장 농밀한 고갱이를 건져 올리는 성과도 있지만 그 지역의 구걸하는 이의 악다구니에 진저리치는 사례도 많다.

여하튼 문인들의 기행문학에는 세계의 문화예술을 섬세하고 통찰력있는 눈을 빌려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있다.

— 마정미 기자